

물질중독자의 부정적 자기지각과 공격적 태도가 약물문제에 미치는 영향: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강민아	송원영 [†]	김종혁	김대연	조성남
국립법무병원 임상심리사	건양대학교 교수	국립법무병원 임상심리사	국립법무병원 중독진료과장	국립법무병원 원장

이 연구는 물질중독자의 재발 요인으로 부정적 자기지각, 공격적 태도, 약물문제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사이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질중독자 140명에게 실시한 자기보고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각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수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정적 자기지각, 공격적 태도,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부정적 자기지각, 공격적 태도는 약물문제와 정적 상관을, 갈망조절 자기효능감과 약물문제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둘째, 부정적 자기지각과 공격적 태도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을 예측하였고, 갈망조절 자기효능감도 약물문제를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를 보였고,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도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물질중독자의 약물문제에 대한 치료시 부정적 자기지각 및 공격적 태도와 갈망조절 효능감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물질중독자, 부정적 자기지각, 공격적 태도, 약물문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원영 / 건양대학교 심리상담치료학과 교수 / 충남 논산시 대학로 121
TEL: 041-730-5414 / FAX: 041-730-5416 / Email: 1058@paran.com

물질중독은 통제상실에 대한 심리장애이다(Najavits, 2002). 중독 치료는 물질중독자의 고유 특징인 무력감과 통제력 상실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인지적으로는 긍정적 자기 존중과 신뢰의 내용으로 변화하는 것이고, 행동적으로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소소한 일상적 행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중독은 '내부에 있는 결핍'을 '외부의 어딘가'에서 대신 채우는 행위로 정의되기도 한다(Flores, 2007). 내적 공허로부터 일시적으로 도피하기 위한 여러 추구 행동(알코올, 성, 일, 도박, 게임 등) 중 물질중독은 물질을 통해 이러한 공허함을 대치하려는 시도이다. 따라서 자기 구조의 내적 결함이 교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중독행위가 사라진다 해도 또 다른 중독행위로 대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물질중독자의 통제실패와 내적 공허 등 약물문제와 관련된 중재요인을 탐색하여 효과적이고 올바른 회복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크겠다.

물질중독은 우울과 깊은 관계가 있다. Meulenbeek(2000)의 연구에서 헤로인 중독자 대상 50%가, Shoptaw, Peck, Reback와 Rotheram(2003)의 연구에서는 메스암페타민 중독자 52%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에 해당하였다. 국내 메스암페타민 중독자의 연구에서는 93.2%가 우울한 기분이 있고, 그중 59.1%는 치료가 요구되는 우울증 위험군에 속하였다(이춘우 등, 2004). Beck(1967, 1976)은 우울증을 자신이나 환경 또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지체계로 설명하였다. 그 인지삼제 중, 첫 요인은 자기에 관한 부정적 견해로, 이는 자신을 결점이 많고 부적절하며, 바람직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다. 자기 부정적 견해는 인지삼제 중 가장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물질중독자에게 있

어서도 낮은 자존감은 중독적 사고의 근원이다(Twerski, 1997). 이들은 자존감 혹은 건강한 자기에 부족으로 건강하지 않은 자기 관리가 행해져 고통을 받는다(Khantizian, 1994). Kurtz(2007)는 수치심은 무가치감과 관련 있으며, 이것들이 모든 중독자들에게 전염병처럼 퍼져 이들을 괴롭힌다고 하였다. 즉, 중독자는 긍정적인 자기지각의 경험이 소실되거나 손상되어 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것을 걱정하여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결국 긍정적 자기 경험의 대체물로 약물을 찾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심리적 요소로서 약물의 의미는 현실적 문제를 도피하는 대처 방법이며 자신의 갈등이나 자기 비난을 일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도구이다(박상규, 2003).

물질중독자의 공격적 행동이 약물의 직접적인 약리 작용의 결과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 왔다(Moss & Tarter, 1993). 하지만 공격적 행동에 대한 약물의 직접적 인과관계에만 중점을 두는 것에 반대하는 몇 가지 주장이 있다. 첫째는, 약물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인 것으로, 약물이 사용자의 판단과 자제력에 영향을 미쳐 특정 상황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태도를 촉진 시킬 뿐이라는 것이다(Blum, 1969). 또 다른 근거는 물질중독자의 상당수가 이미 반사회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향정신성 약물 사용 이전부터 보인다는 것이다(Robins, 1974). 공격성을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이 자신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내적 문제가 약물문제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많은 물질중독자들은 반사회적 특성이 있으며, 아동기부터 공격성이 뚜렷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센터, 2021). 물질중독자는 건강한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못하고 내적 통제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욕구가 외부에서 즉각적으로 충족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박상규, 2003). 때문에 물질중독자는 타인에게 과도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며,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대인관계에서 쉽게 좌절한다. 이렇게 목표나 욕구가 좌절되거나 공격을 받을 때 느끼는 짜증, 억울, 격노 등의 정서적 불편감이 분노이며, 이러한 분노는 물질중독자의 주요 정서 요인 중 하나이다. 분노는 기본적인 감정이지만 특정 행동표출을 야기하며(Urschel, 2009), 사람들은 분노를 통해 일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후 이어지는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이 필연적으로 뒤따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아채지 못할 때가 많다. 이에 분노 통제의 실패로 인해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 수단을 취하는 태도는 공격성으로 나타난다. 욕구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은 공격성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개인의 노력을 막거나 좌절시킨 결과라고 설명한다(Dollard, Miller, Doob, Mower, & Sears, 1939). 중독자는 내면의 수치심이 많고, 내면화된 공격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유은영, 2012). 물질중독자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기 쉬우며, 반복되는 중독자의 공격적 태도는 결국 행동통제의 부족과 관련된 약물문제에의 요인이 된다. 자가 투약설 가설에 따르면(Khantzian, 1982) 헤로인 중독자는 약물이 공격성을 낮춰 주기 때문에 투약을 선호하며, 강렬한 분노를 다스리고 진정시키는 효과를 위해 헤로인을 투약한다. 이를 통해 약물사용은 신경전달물질이 주는 생리학적인 쾌락의 수단일 뿐 아니라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부정적 느낌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약물의 영향으로 생기는 공격적인 태도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물질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효과가 강화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물질중독자는 약물사용을 줄이거나 끊고자 하지만 약물에 대한 갈망이라는 정신 현상은 회복을 계획하는 물질중독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Skorka-Brown, Andrade, Whalley & May, 2015). 갈망(craving)은 좁은 의미로는 물질사용에 대한 욕구로, 넓은 의미로는 물질사용의 충동으로 정의된다(한창우, 최영숙, 김영호, 이건설, 2018). Marlatt(1987)은 심리적 애착의 한 형태로 갈망을 제안하며, 갈망은 약물에 애착되어 약물을 추구하려는 것에 마음이 사로잡힌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갈망은 약물 효과에 대한 주관적 욕구로, 환경적 단서에 의해 약물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증폭되는 것이다. 물론 단약 동기가 있는 상태에서도 갈망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단약의 과정에는 갈망상황을 약물과 관련된 외부 자극의 접근 신호로 해석하지 않고 회피 신호로 재해석하여 단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학습이 요구된다.

중독 회복 과정에서의 단약에 대한 동기나 기대는 갈망과 자기효능감(예,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갈망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 사이의 관계를 통해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다. Bandura(1999)는 지각된 자기효능감이 행위를 발생시키는 근본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을 때, 어려움에 직면하는 행동이나 인내하는 동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낮은 자기효능감은 약물사용의 강한 예측 요인이 되며, 높은 자기효능감은 단약 중 약물 재

사용 삽화가 생겼을 때 이를 단순 실수로 간주하여 더 이상의 지속적인 약물문제로 이어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강력한 보호 요인이 된다. 약물문제 고위험 상황에 대한 자기효능감은 약물문제 단서자극과 약물사용의 연결고리를 끊어 중독자를 보호해 준다(Diclemente, Carbonari, Montgomery & Hughes, 1994; Marlatt & Witkiewitz, 2004). 자기효능감과 갈망의 관계는 부적 관계이며, 약물문제 단서와 약물사용 사이를 매개하며, 정서와 갈망 사이에서도 연관을 보인다(Niaura, 2000). 따라서 중독성 물질 사용에 대한 높은 자기조절 효능감은 물질사용의 문제에서 중요한 매개요인이자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다.

자존감과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5~.8의 높은 상관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Chen, Gullyet, & Eden, 2001, 2004, Sherer et al., 1982).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의 정적 상관이나(최시은, 2021), 자존감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낮다는 연구들은 일관성 있게 나타난다(Chen 등, 2004) 자기 비난은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거나(Dunkley, Zuroff, & Blankstein, 2003) 무가치와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이에 따라 학습된 무기력을 경험하게 한다(Blatt, 1995). 알코올과 아편 중독자 224명을 대상으로 부정적 해석편향과 단약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정적 해석편향은 더 많은 갈망을 촉진하는 반면, 물질사용 조절 자기효능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부정적 해석편향은 갈망과 단약 자기효능감의 매우 강력한 예측 변수이다(Beard et al., 2019). 이를 종합해 볼 때, 부정적 자기지각은 물질중독자의 갈망 조절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여겨진다.

공격성은 알코올 갈망과 정적인 상관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Roozen, van de Wetering, & Franken, 2013). 이 연구는 알코올중독으로 인해 해독치료를 받은 알코올중독자 4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공격성은 알코올 갈망과 정적인 상관을 보일 뿐 아니라 갈망이 알코올 문제를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코카인 중독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격성과 코카인 갈망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Roozen, van der Kroft, van Marle, & Franken, 2011). 일반적으로도 공격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서는 부적인 상관이 지속적으로 보고된다(Mofrad, & Mehrabi, 2015; Willemse, Smith, & Van Wyk, 2011). 이에 물질중독자의 공격적 태도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이 연구는 물질중독자의 재발 요인으로 부정적 정서를 발생시키는 물질중독자의 부정적 자기지각과 분노의 외현적 표현인 공격적 태도가 약물 문제와 어떤 관계가 있으며, 갈망 조절 자기효능감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물질중독자의 단약에 필요한 구체적인 노력과 방법을 제시하고, 단약 성취, 단약 기간의 확장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자

이 연구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연구에 이용되는 자료로, 기존의 자료와 문서를 이용한 후향적 연구이다. 이 연구대상자의 소속기관은 입소 시 환자의 정신의학적 진단과 치료계획을 설정하기 위하여 모든 입소대상자

에게 심리평가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수집되고 기록된 환자의 자료는 중독의 치료와 예방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고지 후, 동의를 구한다. 이 연구에서도 고지와 동의의 과정을 진행하였고, 미동의하여 거부한 대상자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는 충남지역 소재의 병원에 개설된 약물중독재활센터 입소 환자 14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사용자가 78명, 유해화학물질 사용자가 62명이었다. 이들은 치료감호법 제 2조 2항의 마약·향정신성 의약품·대마 그 밖의 물질 등에 중독된 사람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입소하였다. 따라서 구속 후 재판과정을 거치거나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가중료 취소로 재입소 되는 과정에서 약물로 인한 금단 증상은 소실된 상태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입소한 158명 중 심리검사를 완성하지 않은 7명과 심리검사를 거부한 11명을 제외한 총 14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물질사용 장애로 진단받았고, 진단을 받은 후 필요한 약물치료와 각종 심리치료에 참여하고 있다. 센터 입소 규정으로 대상자의 성별은 모두 남성이며, 평균 나이는 46.59세, 평균 학력은 10.23년, 불법약물 사용으로 구속횟수는 평균 8.89회였다. 결혼상태는 미혼 64명(45.7%), 기혼 23명(16.4%), 이혼 42명(30.0%), 동거 9명(6.4%), 사별 2명(1.4%)이었다.

측정도구

성격평가 질문지(PAI)

PAI(personality assessment inventory)는 성격과 정신병리를 평가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로, 치

료계획의 수립과 치료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도구이다(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11). 이 연구에서는 PAI의 소척도 중 아래 세 가지를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인지적 우울척도(Cognitive: DEP-C)**는 부정적 기대, 무력감, 인지적 오류 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인지적 특징을 평가하여 개인 유능감이나 자기 효율감을 포함하는 자존감의 중요한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이다. 이 척도가 상승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희망도 없는 실패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김영환 등, 2001a, 2001b.). 이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자기지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2001b)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9이었다. 두 번째로, **공격적 태도척도(AGG-A)**는 기질적 분노와 적대감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척도가 상승할수록 쉽게 화를 내고 좌절감을 경험하며, 타인을 위협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으로 분노를 이용할 수 있고 자신을 비판하거나 방해하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으로 해석한다(김영환 등, 2001a, 2001b.). 김영환 등(2001b)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세 번째로, **약물문제척도(Drug: DRG)**는 약물의 사용에 관한 남용과 의존에 대한 행동 및 결과에 대한 평가 척도이다. 이 척도는 물질을 사용하지만 완전한 절제의 범주에서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 범주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영환 등, 2001a, 2001b.). 김영환 등(2001b)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74이었다.

단약 자기 효능감척도(DASES)

DiClemente 등(1994)의 알코올에 관한 자기

효능척도를 김용진(1998)이 변용한 자기보고식 단약 자기효능감 척도(Drug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DAS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 항목으로는 부정적 정서조절(5), 사회적 긍정적 압력(5), 신체 및 그 밖의 염려감(5), 갈망(5)으로 인한 약물사용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에서는 갈망에 대한 자기효능감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1점부터 5점까지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갈망 상황에서 단약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채점되었다. 김용진(1998)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2이었고, 이 연구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85이었다.

자료 분석

분석을 위하여 SPSS 23.0과 jamovi 10.0을 사용해 다음과 같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였고, 변인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인지적 우울 및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셋째,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트스트래핑은 매개효과의 표준오차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구간추정 방법을 이용하여 95%의 신뢰구간(Biased-corrected CI)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한다.

결 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변인간의 Pearson 상관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와 같이, 부정적 자기지각은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r = -.42,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약물문제, $r = .40,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공격적 태도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r = -.25, p < .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 약물문제, $r = .29, p < .01$, 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은 약물문제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 $r = -.36, p < .01$, 을 보였다.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및 평균과 표준편차(N=140)

	부정적 자기지각	공격적 태도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약물 문제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부정적 자기지각					54.67	12.73	.45	-.13
공격적 태도	.16				52.31	10.96	.09	-.27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42**	-.25**			17.73	4.67	.21	-.45
약물문제	.40**	.29**	-.36**		79.96	15.48	.21	-.39

** $p < .01$.

매개효과 검증

jamovi를 활용하여 부정적 자기지각 및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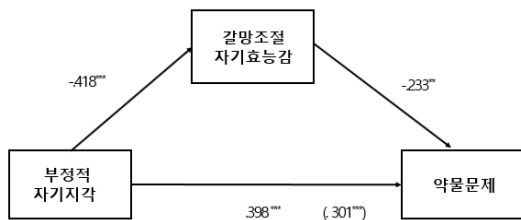
먼저 부정적 자기지각을 독립변인,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인, 약물문제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2와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부

정적 자기지각은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418, p < .001$, 약물문제 심각도에 관하여 유의미하게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301, p < .001$. 이는 부정적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낮아지며, 약물문제 심각도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은 약물문제의 심각도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

표 2. 부정적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	B	SE	β	t
부정적 자기지각 →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153	.028	-.418	5.40***
부정적 자기지각 → 약물문제	.367	.102	.301	3.59***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 약물문제	-.774	.279	-.233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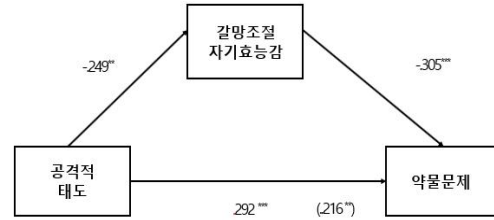
** $p < .01$, *** $p < .001$.



주. 괄호 안에 수치는 직접효과임.

** $p < .01$, *** $p < .001$.

그림 1. 부정적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주. 괄호 안에 수치는 직접효과임.

** $p < .01$, *** $p < .001$.

그림 2.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모형

표 3.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경로	B	SE	β	t
공격적 태도 →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153	.035	-.249	-3.05**
공격적 태도 → 약물문제	.306	.113	.216	2.70**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 약물문제	-1.102	.265	-.305	-3.80***

** $p < .01$, *** $p < .001$.

으로 나타났다, $\beta = -.233, p < .01$. 이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약물문제 심각도는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격적 태도를 독립변인으로 두고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3과 그림 2에 제시하였다. 공격적 태도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249, p < .01$, 약물문제 심각도에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216, p < .01$. 이는 공격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낮아지고, 약물문제 심각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은 약물문제 심각도에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305, p < .001$. 이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약물문제 심각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부정적 자기지각 및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매개하

는 모형의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Shrout과 Bolger(2002)가 제안한 이 방법은 가상의 무선 표본을 대량으로 만들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이 통계적 무선오차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히는 방법이다. 부트스트래핑은 신뢰구간을 제시하고 그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은 1,000개였고,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정적 자기지각이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을 거쳐 약물문제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신뢰구간 0을 포함하지 않아서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098, CI: [.026, .012]$. 또한 모든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부정적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감소되고 이것이 약물문제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공격적 태도가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을 거쳐 약물문제 심각도에 이르는 경로는 신뢰구간 0이 포함되

표 4. 부정적 자기지각 및 공격적 태도와 약물문제의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독립변수(a)→종속변수(c) →종속변수(c)	독립변수(a)→매개변수(b)→종속변수(c)
a	b	c	독립변수(a)→매개변수(b)→종속변수(c)	[Bootstrapping CI 95%]
부정적 자기지각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약물문제	.398	.301 .098 [.026, .012]
공격적 태도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약물문제	.292	.216 .076 [.019, .196]

주) Bootstrap 표본은 1000번.

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eta = .076$, CI: [.019, .196]. 또한 모든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는 공격적 태도를 지닐수록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약물문제 심각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이 연구는 물질중독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자기지각, 공격적 태도가 약물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해당 관계를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부정적 자기지각과 공격적 태도가 약물문제를 증폭시키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약물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개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나타난 각 변인간의 관계와 의미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질중독자가 부정적 자기지각을 지닐수록 약물문제의 심각성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기지각이 부정적일수록 약물문제가 증가됨을 의미한다. 중독은 생물학적, 심리적, 행동적인 요인이 모두 포함된 전인적이고 상위 체계적인 자기조절의 이탈로 본다(Shaffer, LanPlanter, Kidman, Doanto, & Staton, 2004). 이에 물질중독자들은 자신이 가치가 없거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에 대하여 안정된 내적 구조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Flores, 2007). 결국 물질중독은 외적 자원인 약물을 통해 무가치함에 저항하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 특정한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자신감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회피하

는 수단으로 특정문제를 반복한다. 물질중독자는 약물을 통하여 자신에게 결핍되고 좌절된 것을 충족하려고 하며, 약물이 주는 마술적 힘을 통해 손상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물질중독자의 반복적인 물질사용은 끊임없는 좌절과 절망에 맞닥뜨리면서 공허와 결핍에 점철된다.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해 억울해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치료란 물질중독자가 현실적이고 진실해지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물질중독자가 현재 위치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가치와 무능력은 자신의 행동과 스스로 일으킨 사건들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문제행동인 중독행위를 친사회적 행위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 NA, AA와 같은 자조모임에서 ‘바닥을 친다.’는 용어는 다른 의미에서 자신의 한계를 겸허히 직면할 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문장이다. 12단계 프로그램의 4~7단계 내용(4단계 도덕적 검토, 5단계 자신의 잘못을 시인, 6단계, 성격상 결함, 7단계 단점 없애기) 또한 이러한 내적 문제를 성찰하고 검토하도록 권장한다.

둘째, 물질중독자가 공격적 태도가 높을수록 약물문제의 심각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중독 관련 연구에서 분노나 공격적 태도가 중독과 관련이 높다고 보고한 것들과 일치한다. 분노는 대학생의 알코올중독 및 인터넷 중독과 상관이 있었고(송미경, 2012), 청소년의 높은 흡연율(Worminton, 2012), 약물남용(Pulkkinen., 1994)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 공격적인 특성을 지닌 집단은 음주통제 자기효능감이 낮았다(김희영, 손정락, 2013). 분노나 공격성은 중독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분노는 흡연의 원인으로 설명되는데(안은성, 배상수, 2006) 이는 공격적 태도가 높은 흡연자가 자신의 공격성, 충동성, 긴장감을 완화 시킬 목적으로 흡연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errenkohl, Catalano, Henphill, & Toumbourou, 2009). Veilleux, Skinner, Reese와 Shaver(2014)도 알코올 중독자가 정서적 명확성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 전략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알코올 남용이라는 방법으로 특정 감정을 조절한다고 보고하였다. 물질중독자에게서의 분노 수준은 불안정한 청소년 수준에 비교되기도 한다(박선아, 2008). 이런 연구들을 참고하면 중독문제를 보이는 사람들의 공격적 태도나 분노는 그 자체만으로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약물문제의 감소를 위한 중요한 개입 목표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셋째, 물질중독자가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약물문제 심각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korka-Brown 등 (2015)은 물질중독자에게 물질사용의 지속, 중단, 약물문제에서 갈망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했으며, 일반적으로 불법 약물뿐만 아니라 알코올, 담배, 커피와 같은 비불법 중독성 물질에서도 10%이상 갈망이 있다고 확인된다(Hofmann, Baumeister, Förster, & Vohs, 2011). 이와 같은 갈망에 대한 효과적 관리나 대응은 중독적 삶에서 벗어나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부정적 자기지각이 약물문제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은 갈망이 드는 상황에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사실은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

신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자기 견해가 높아지더라도 약물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약물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Berry, May, Andrade와 Kavanagh(2010)는 갈망이 침습적으로 나타나며, 자서전적 기억의 형태와 같은 인지 과정이 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갈망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부정적 자기지각이 있더라도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높다면 약물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Bandura(1999)는 물질중독자가 자극적인 갈망을 없애기 위해 노출단서에 대항하는 인지적 행동적 자기조절 전략을 능동적으로 활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전략에는 지연 전술에 대한 자기지시와 같은 것이 포함된다. 따라서 중독 회복을 위해서는 갈망을 더 쉽게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자기효능감을 비롯한 긍정적 자기지각의 향상이고, 연구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으로 봉사나 기부 활동을 권유하기도 한다(조성남 등, 2021). Kavanagh, May 와 Andrade(2009)는 갈망의 정교화된 침습이론(Elaborated Intrusion Theory of Desire: EI)에서 갈망은 추구하는 물질에 대해서 구현되는 감각 이미지를 포함하여 나타나는 인지-정서적 상태라고 하였다. 이들은 갈망이 재현되는 유사한 감각 이미지를 포함하여 갈망을 해결하는 개입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Sokoran-Brown 등(2015)은 물질중독자의 갈망에서 개인마다 시각적, 청각적, 감각적 특성을 분류하여 이에 적합한 간섭자극 훈련을 한다면 갈망에 의한 약물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중독자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으로 인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는 대인관계 갈등으로

이어져 중독문제가 다시 나타난다. 이에 중독자는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기 사랑하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박상규, 2003), 회복은 진정한 자존감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다(박승현, 2015). 중독자는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불편감을 피하기 위해 약물에 집착하고 잘난 척하는 것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한다(박상규, 2016). 중독 상담가는 중독자의 내면에 이러한 본성이 있음을 알고 중독자가 스스로 존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물질중독자는 외부 대상이나 조건에 의해 좌우되는 일시적 자존감이 아닌, 영속적이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진정한 참나를 찾아야 한다. 조성남 등(2021)도 남과의 비교가 아닌 어제의 자신과 비교를 통해 오늘의 자신이 보다 현명해지고 성숙함에 만족하는 것을 익히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존감이 높아지고 행복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감정을 조절하고, 불쾌한 기분을 달래기 위한 이러한 과정은 물질에 의존하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 패턴을 끊게 하는 궁극적인 치료 요체이다. 물론 치료 밖 환경에서는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되는 외적 자원으로 가족이나 주변사람들의 지지도 필요하다. 중독은 관계문제에서 기인하므로 긍정적 대인관계 형성 또한 회복의 주요한 자원이 된다. 건강하고 친밀한 대인관계가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배울 때 비로소 안정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 중독자의 삶 속에 만족스럽고 충만한 관계가 없다면 내적 공허감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 파괴적인 외부 만족원과 감각원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Flores, 2007).

다섯째, 공격적 태도가 약물문제의 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에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적 태도가 강할수록 약물문제의 심각도가 높아지나, 갈망조절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을수록 약물문제의 심각성은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적 태도를 지닌 물질중독자가 약물문제의 심각도를 높더라도 갈망조절 효능감이 발휘된다면 약물사용을 통해 문제해결 하려는 시도를 포기함으로써 약물문제의 심각성이 감소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Miczek과 그의 동료들(1994)은 물질중독자들의 공격적 행동이 어릴 적부터 획득된 학습된 메커니즘, 즉, 획득한 대처 및 생존 기술일 것으로 간주한다. 즉, 통제력 상실을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힘을 획득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욕구좌절-공격성 가설(Frustration-Aggression Hypothesis) 역시 목표 성취 욕구가 환경적 방해로 좌절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표출된다고 보았다. 물질중독자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인내, 참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문제해결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약물로 다스리려는 대처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약물중독이라는 문제행동이 습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자가투약설 가설(Khantzian, 1982)로, 이 이론에서는 약물사용은 강렬한 정서를 약물로 다스리고자 하는 시도로 본다. 이를 수정하기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으로는 Bandura(1973)의 자기효능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는 공격성을 제어하는 5가지 인지 요인 중 하나로 자기효능감을 제안하였고, 약물문제를 조절할 수 있는 기제로 자기효능감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Bandura, 1999). 따라서 공격적 태도를 지닌 물질중독자의 경우 약물에 대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라는 인지요인을 조절하여 약물문제를 감소시키는 개입방법을 적용

할 수 있다. 공격적 태도는 시간이 흘러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특성이므로 단시간에 감소시키기 어렵지만,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은 중독재활 과정에서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으므로 약물문제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약물사용의 욕구를 유발하는 공격적 상황에 대하여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통해 약물문제로 이어지는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중독자를 위한 동기면담은 내담자의 내적 동기 요인이 변화의 열쇠라고 확신하며, 갈망이 일어난 때 이에 굴복당하지 않고,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준다(조성희, 신수경, 2010). 갈망은 약간의 단서만 있어도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빨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문봉규, 강향숙, 박상규, 2019, 박상규, 2016). 갈망을 다룰 수 있는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갈망을 다루는 방법 중 첫째는 갈망 알아차리기다. 갈망이 일어나면 먼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차린다. 갈망이 일어날 때는 불안해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지켜본다. 둘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 갈망이 들 때,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한다. 이를 통하여 마음이 편안해지고 조절력이 높아진다. 셋째, 갈망이 일어나는 대로 행동한 뒤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다. ‘만약 지금 내가 갈망대로 행동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와 같은 행동의 결과를 떠올려 보는 것이다. 넷째,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갈망에 집착하기 보다는 갈망시의 몸의 변화를 살핀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돌보는 방향으로 주의를 돌린다. 더불어 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영성 훈련과 더불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된다(조성남 외,

2021).

이 연구결과를 확증하고 일반화시키기 위한 제한점을 살펴보고 추후연구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 연구 대상은 물질중독의 문제로 특정 병원에 입원한 대상자이고, 이들이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연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중독자 집단 전체에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국 규모의 중독자 시설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남녀의 부정적 자기지각이나 공격적 태도,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차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둘째, 현실적 제약으로 이들에 대한 추후 평가나 추적 조사를 통해 낮은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부정적 자기지각과 공격적 태도에 영향을 미쳐 약물문제를 지속시키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배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실험연구나 종단연구 등을 통하여 인과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에서 심리내적 변인인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부분 매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갈망에 대한 상위인지, 갈망에 대한 대처방법도 두 변인 사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추후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내적 변인들이 부정적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평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결과를 약물문제에 대한 심리적 기제를 이해하는데 틀을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첫째, 약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정적 자기지각과 공격적 태도에 주목하여 약물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부정적 자기지각

과 공격적 태도가 높을수록 약물문제가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부정적 자기지각과 약물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그 영향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자기지각이 높을수록, 공격적 태도를 지닐수록 약물문제 심각도가 높아지나, 그 관계에서 갈망조절 자기효능감이 증가되면 약물문제 심각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센터 (2021). 마약중독의 원인. http://www.dsacc.or.kr/wp_2ds/07_04.html.에 서 2021. 6. 11 자료 얻음.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a). 성격평가 질문지 실시요강. 서울: 학지사.
- 김영환, 김지혜, 오상우, 임영란, 홍상황 (2001b). PAI 표준화 연구: 신뢰도와 타당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2), 311-329.
- 김영환, 오상우, 홍상황, 박은영 (2011). PAI의 임상적 해석. 서울: 학지사.
- 김용진 (1998). 인지행동 프로그램이 성인약물중독자의 사회심리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영, 손정락 (2013). 문제음주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반사회성 성격특성과 수동공격성 성격특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1), 1-16.
- 문봉규, 강향숙, 박상규 (2019). 알코올 중독자 내 안의 또 다른 나. 서울: 학지사.
- 박상규 (2003). 마약류 중독자를 위한 자기사랑하기 프로그램. 서울: 학지사.
- 박상규 (2016). 중독과 마음챙김. 서울: 학지사.
- 박선아 (2008). 약물사범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태특성분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승현 (2015). 맹자의 마음공부-인간의 자존감 회복의 길. *철학탐구*, 40, 35-70.
- 송미경 (2013). 대학생의 분노, 소외감이 알코올 중독,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행동활성화체계의 매개효과. *청소년 문화포럼*, 36, 60-83.
- 안은성, 배상수 (2006). 개인적 특성과 사회환경이 청소년의 흡연에 미치는 영향.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6, 1-13.
- 유은영 (2012). 내면화된 수치심, 자기통제력, 공격성 및 중독가능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춘우, 권성민, 조성남, 권도훈, 임효덕, 이성국 (2004). 메스암페타민 사용환자의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물치료정신의학*, 10(1), 58-67.
- 조성남, 이대회 (1984). 알콜리즘 환자의 인격특성에 관한 연구. *MMPI를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23(4), 452-461.
- 조성남, 강향숙, 김선님, 김주은, 문봉규, 박상규, 신성만 (2021).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서울: 학지사.
- 조성희, 신수경 (2010). 중독과 동기면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 조원준, 이기효, 김원중 (2007). 알코올중독 입원환자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건과 복지* 9, 47-67.
- 최시은 (2021). 자존감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혜경, 연미경 (1992). 충동성 과제 수행에 대한 아이젠크의 외향성 신경증적 경향성 및 정신병적 경향성의 영향. 성격 및 개인차 연구, 1(1), 103-114.
- 한창우, 최영숙, 김영호, 이건설 (2018). 갈망: 생물학적 이해와 치료적 접근. 중독정신의학, 22(2), 59-63.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York: Prentice-Hall.
- Bandura, A. (1999). A sociocognitive analysis of substance abuse: An agentic perspective. *Psychological science*, 10(3), 214-217.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eck, A. T. (1967). *Depression: Clinical,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aspects*. New York: Harper & Row.
- Beck, A. T. (1976). *Cognitive therapy and emotional disorders*. Boston: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erry, L. M., May, J., Andrade, J., & Kavanagh, D. J. (2010). Emotional and behavioural reaction to intrusive thoughts. *Assessment*, 17(1), 126-137.
- Blatt, S. (1995). The destructiveness of perfectionism: Im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depression. *American Psychologist*, 50(12), 1003-1020.
- Blum, R. H. (1969). Drugs and violence. In D. J., Mulvihill, M. M. Tumin, L. A. Curtis (Eds), *Crimes of Violence, National Commission on the Causes & Prevention of Violence*.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Beard, C, Peckham, A. D., Griffin, M. L., Weiss, R. D., Taghian, N., & McHugh, N. K. (2019). Associations among interpretation bias, craving, and abstinence self-efficacy in adults with substance use disorders.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05. first published on October 18. 2019 as doi: 10.1016/j.drugalcdep.2019.107644.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 Chen, G., Gully, S. M., & Eden, D. (2004). Genera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owar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tinction between correlated self-evalu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3), 375-395.
- DiClemente, C. C., Carbonari, J. P., Montgomery, R. P., & Hughes, S. 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and Drugs*, 55(2), 141-148.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Psychiatry*, 2(3), 427-428.
- Dunkley, D. M., Zuroff, D. C., & Blankstein, K. R. (2003). Self-critical perfectionism and daily affect: Dispositional and situational influences on stress and co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234-252.
- Flores, P. J. (2007). *Group Psychotherapy with Addicted Populations*. New York London: Routledge.

- Herrenkohl, T. I., Catalano, R. F., Henphill, S. A., & Toumbourou, J. W. (2009). Longitudinal examination of physical and relational aggression as precursors to later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Violence & Victims, 24*(1), 3-29.
- Hofmann, W., Baumeister, R. F., Förster, G., & Vohs, K. D. (2011). Everyday temptations: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of desire, conflict, and self-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318-1335.
- Kavanagh, D. J., May, J., & Andrade, J. (2009). Tests of the elaborated intrusion theory of craving and desire: Features of alcohol craving during treatment for an alcohol disorder. *Britis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8*(3), 241-254.
- Khantzian, E. J. (1982). *Psychopathology, psychodynamics and alcoholism*. In E. M. Pattison & S. E. Kaufman (Eds), *Encyclopedic handbook of alcoholism*(pp. 581-597). New York: Grander Press.
- Khantzian, E. J. (1994). *Alcoholics Anonymous-Cult or corrective?* Paper presented at Fourth Annual Distinguished Lecture.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Kurtz, E. (2007). *Shame and guilt*. Bloomington: iUniverse.
- Marlatt, G. A. (1987). Craving notes. *British Journal of Addiction, 82*(1), 42-43.
- Marlatt, G. A., & Witkiewitz, K. (2004). Relapse prevention for alcohol and drug problems: that was Zen, this is Tao. *American Psychologist, 59*(4), 224-235
- Meulenbeek, P. A. M. (2000). Addiction problems and methadone treatment.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19*(2), 171-174.
- Miczek, K. A., DeBold, J. F., Haney, M., Tidey, J., Vivian, J., & Weerts, E. M. (1994). *Understanding and Preventing Violence, Social Influences. Alcohol, Drugs of Abuse, Aggression, and Violence*. Washington, D. C.: National Academy Press.
- Mofrad, S. H. K., & Mehrabi, T. (2015). The role of self-efficacy and assertiveness in aggression among high-school students in Isfahan.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8*(4), 225-231.
- Moss, H. B., & Tarter, R. E. (1993). Substance Abuse, Aggression, and Violence. *Journal on Addictions, 2*(2), 149-160.
- Najavits, L. M. (2002). *Seeking safety. A treatment manual for PTSD and substance Abuse*. New York: Guilford Press.
- Niaura, R. (2000). Cognitive social learning and related perspectives on drug craving. *Addiction 95*(2), 155-163.
- Pulkkinen, L. (1994). Proactive and reactive aggression in early adolescents: Social psychological adjustment of aggressors and victim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30*(4), 479-491.
- Robins, L. N. (1974). *Deviant Children Grown Up: A Sociological and Psychiatric Study of Sociopathic Personality*. Florida: Krieger Publishing.
- Roozen, H. G., van der Kroft, P., van Marle, H. J., & Franken, I. H. A. (2011). The impact of craving and impulsivity on aggression in detoxified cocaine-dependent patients. *Journal of Substance Abuse Treatment, 40*(4), 414-418.

- Roozen, H. G., van de Wetering, B. J. M., & Franken, I. H. A. (2013). Does Alcohol Craving Mediate the Impulsivity-Aggression Relationship in Recently Detoxified Alcohol-Dependent Patients?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9(1), 57-60.
- Shaffer, H. J., LanPlanter, D. A., Kidman, R. C., Doanto, A. N., & Staton, M. V. (2004). Toward a syndrome model of addiction: Multiple expression, common etiology.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2(6), 367-374.
- Sherer, M., Maddux, J. 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2), 663-671.
- Shoptaw, S., Peck, J., Reback, C. J., & Rotheram-Fuller, E. (2003). Psychiatric and substance dependence comorbidities,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and risk behaviors among methamphetamine dependent gay and bisexual men seeking outpatient drug abuse treatment. *Journal Psychoactive Drug*, 35(1), 161-168.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korka-Brown, J., Andrade, J., Whalley, B., & May, J. (2015). Playing Tetris decreases drug and other cravings in real world settings. *Addictive behaviors*, 51, 165-170.
- Twerski, A. J. (1997). *Addictive thinking: understanding self-deception*. Massachusetts: Hazelden Publishing.
- Urschel, H. C. (2009). *Healing the Addicted Brain: The revolutionary, science-based alcoholism and addiction recovery program*. Naperville: Sourcebooks.
- Veilleux, J. C., Skinner, K. D., Reese, E. D., & Shaver, J. A. (2014). Negative affect intensity influences drinking to cope through facets of emotion dysregula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9, 96-101.
- Willemsse, M., Smith, M. R., & van Wyk, S. B.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aggression in a group of adolescents in the peri-urban town of Worcester, South Africa: Implications for sport participation. *Journal for Physical Health Education, Recreation and Dance*, 17(3) first published on June 1, 2011 as doi: 10.4314/ajpherd.v17i3.68077
- Worminton, S. V. (2012). Alcohol and other drug use in middle school: The interplay of gender, peer victimization, and supportive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3(5), 610-634.
- 원고접수일 : 2021. 05. 12.
수정원고접수일 : 2021. 06. 20.
게재결정일 : 2021. 07. 20.

The Influence of Negative Self-Perception and Aggressive Attitude on Drug Problems in Substance Addicts: The Mediating Effect of Craving Self-Efficacy

Min A Kang¹⁾ Wonyoung Song^{2)†} Jong Hyeok Kim³⁾ Deyon Kim¹⁾ Sung Nam Cho¹⁾

¹⁾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National Forensic Hospital

²⁾Department of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³⁾Department of Clinical Psychology, National Forensic Hospital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and drug problems as relapse factors in substance addicts. In particular, the mediating effect of craving self-efficacy was examined.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self-reporte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40 addicts;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btained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craving self-efficacy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and drug problems. Results showed that negative self-perception and aggressive attitude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rug problems, while craving self-efficacy and drug problem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each other. In addition, negative self-perception and aggressive attitude predicted craving self-efficacy, and craving self-efficacy predicted drug problems. Moreover, craving self-effica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nd drug problems, and craving self-efficacy was partial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ggressive attitudes and drug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and craving self-efficacy when approaching drug problems in substance addicts. Finally, we discussed the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ed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Substance Addict, Negative Self-Perception, Aggressive Attitude, Drug Problem, Craving self-efficacy

† Corresponding Author : Wonyoung Song, Dept. Counseling & Psychotherapy, Konyang University. Professor, 121 Daehangno Nonsan, Chungnam, TEL: 041-730-5414, FAX: 041-730-5416, Email: 1058@paran.com.